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한 결 교 회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개역개정]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표준새번역]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2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4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5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7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1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한결같은 교회, 한결 더 나은 교회
 춘천시 삭주로 154 [우편번호 : 24234]

공홀의 마음을 복으로 받은 자(2)

마태복음 5:1~12(팔복강해 17)

'공홀의 복'에 관한 내용도 이 정도로 끝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고, 그만큼 좀 더 살펴볼 내용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인데, 여덟 가지 복의 모든 내용은 몸의 각 기관처럼 동시적(同時的)이자 유기적(有機的)인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각각의 복이 순서대로 배치된 까닭에 단계적(段階的)이자 논리적(論理的)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살펴볼 "공홀히 여기는 마음의 복"의 위치와 순서다. '공홀히 여기는 마음' 앞에 등장하는 복이 무엇인가? 바로 공의에 굽주리고 정의에 목마른 마음 즉, 공의와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왜냐 "공의와 자비, 정의와 공홀"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고, 오히려 논리적인 모순과 충돌을 일으키는 순서처럼 보인다. 그러나 팔복의 순서는 "공의와 자비는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와 공홀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그렇다면 공의와 공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다. 또한, 그분의 사랑과 공홀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크고 깊으며 풍성하시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계산적이거나 경박하지 않으시다(민 23:19).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홀과 사랑을 우리처럼 오용하거나 남용할 거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왜냐하면, 공홀과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께 자리매김한 성품이 '거룩함'과 '의로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고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죄인의 불의와 불법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양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89편 14절로써, 이 찬양은 서로 다르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두 성품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게중심처럼 정적(靜的)으로 표현했고,

사랑과 자비와 진리는 어디든 뺏어가는 것처럼 동적(動的)으로 표현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일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사랑과 자비로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물과 만사를 공명정대하게 다스리시지만, 그 모든 것을 심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 당신을 배반하고 대적했지만, 그런데도 공의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그들을 향해 자비와 공홀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89편 14절은 바로 그 공의와 공홀의 하나님을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가 나무의 뿌리이자 줄기라면, 자비와 공홀은 꽃과 열매인 썸이다. 또한, 역학적(力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는 구심점(求心點)인 썸이고, 그 공의의 구심점으로부터 뺏어 나가는 원심력(遠心力)이 사랑과 자비이며, 사랑과 자비의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공의와 정의의 구심력(求心力)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팔복의 순서도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 먼저 등장하고, 공홀이 거기에 뒤이어지게끔 배치한 듯싶은데, 그래서 시편 89편과 다니엘 4장의 영적 원리를, 예수께서 팔복의 교훈에 적용하신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공의의 기초와 정의의 토대가 제대로 서지 않은 사회와 공동체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다. 사랑은 무엇이든 다 용납하고 무조건 다 베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먼저 채우고 배부른 사람에게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자비와 공홀임을 명심하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고전 13:6).

-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을 떠올리고 나뉘보자.
- 팔복의 각 내용과 전체 내용은 어떤 특징을 지녔는지 설교를 참고하라.
- 시편 89편 14절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
- 시편 89편과 팔복의 순서를 토대로 '공의와 공홀'의 관계를 정리해보라.
- 공의를 잃은 사랑과 자비, 공홀을 잃은 정의의 폐해에 관해 생각해 보라.